'死活의 기로 에 선 해외건설 - 실천적 진흥 전략 수립해야

- 정부 '해외건설 진흥 5개년 계획' 검토, 장기 비전과 목표의 제시도 -

건설교통부가 새해부터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담금질하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의 뚜렷한 침체 조짐과 해외건설 부진의 여파가 건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에 마련한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해외건설 부문을 포함시켰으나 해외건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완결된 진흥 계획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준비 단계이나 이 달 중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과업 지시를 하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의 골격을 검토할 예정이다.

독립된 진흥 계획이 절실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복수 국가들간 경제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 개방화는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 요소와 상품 및 서비스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개방화 흐름에 따라 국제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당 무역 협정국들이 개방화의 수혜를 배타적으로 누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들에게만 자국의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계약 실적이 1999년의 92억 달러 규모 이후 6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였고, 지난해에는 37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은 전적으로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의 영향 탓만은 아니다.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프리카에서의 실적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는 1992년 28억 달러 규모의 계약 실적 이후 최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플랜트 부문의 계약 실적은 2002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리의 해외 건설 사업이 현지국의 자국화, 중국 및 터키 업체들의 약진 등 건축 및 토목 부문의 경쟁 구도 변화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비중이 높은 플랜트 부문에 주력해 왔으나 도약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플랜트 건설 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 지역과 CIS(독립국가연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및 브라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망 시장은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 부족, 전략적 판단력과 추진력 부족, 지역주의에 의한 진입 장벽, 국가 정책적 지원 체계 불충분 등으로 해외 건설 사업은 사활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는 단기적인 계약 실적 저하라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최근 5년 간 누누이 강조해 온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미흡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은 기존의 현안 대책을 단순히 종합하는 의례적인 작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5년 후 해외 건설 사업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천적 전략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책 중심의 계획될 듯

정부의 계획안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분석, 당면 문제점, 지원 체계 분석, 세부 추진 방안, 정책 건의 등을 중심 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 방안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충, 해외 사업 수주 업체에 대한 국내 입찰시 가산점 부여, 기술 투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EDCF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규모 확충이 가능하다면, 국내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이므로 국내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2001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비중은 평균 0.22%인 반면, 우리나라는 0.06%(약 3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산점 부여 방안은 국내 사업에만 집중하는 중견 업체들에게는 네거티브 인센티브가 되므로 반대가 예상된다. 기술 투자 지원책은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요소 기술과 종합 건설관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대책 청사진이 되어야

해외건설 진흥 5개년 계획은 당면한 가려움증을 해소하려는 지원책뿐만 아니라 아토피성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종합 처방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해외건설 사업의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는 정부와 건설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상호 유기적 협력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개년 계획이지만 10년 후를 겨냥하는 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중점 목표로는 해외건설 200억 달러 달성, 해외건설 진흥 기반 체계화, 수익성 향상, 시장 창출 역량 강화,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국내외 전문 인력 육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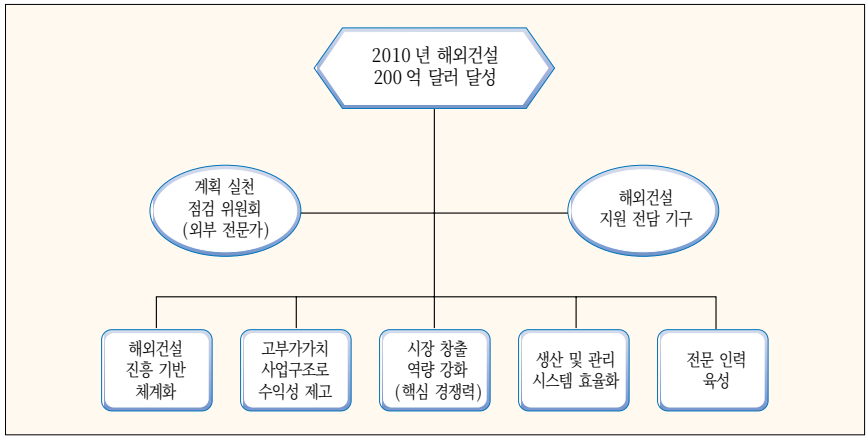
둘째, 경쟁 시장과 경쟁 요소를 분석하되 특히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분석과 선진 업체의 경쟁력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지국 시장 여건의 변화는 산업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 시장 접근 방안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품별 국가별 경쟁 요소 분석틀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도 유익할 것이다. 선진 업체의 핵심 경쟁력에 대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보를 산업 차원에서 종합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전 판단과 반성은 많으나 실제 경쟁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경쟁력 분석 체계는 대응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므로 선진 업체, 현지 업체, 경쟁 대상 제3국 업체와 경쟁 요소별로 비교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 여건의 변화, 경쟁 구도의 변화, 국내 업체의 경쟁력 등과 연계된 지원 체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원 제도 틀 내에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전 실천에 필요한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공자 금융 요구 공사의 증대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작업 전담반(TFT)을 운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선진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 투자 지원책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지원 업무를 총괄할 해외건설 지원 전담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부 추진 방안은 중점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과제들과 단계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점 분야는 중점 목표와 일관되도록 해외건설 진흥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사업구조, 핵심 경쟁력 강화, 생산 및 관리 시스템 혁신, 전문 인력 육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해외건설 진흥 계획의 기본 체계도 제안



업체 글로벌 마인드 제고 필요

해외건설 진흥의 핵심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다. 건설업체가 국내외 환경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기업이 먼저 점령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수익 추구 본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 열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성을 좇아갈 기본 체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진흥 계획에서 지향해야 할 처방이란 바로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약과 비타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보약과 비타민 투여 효과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다. CJ

김태황
천안대 교수
thkim@cheonan.ac.kr